

‘구직난’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 “희망은 있다”

“지방엔 지방大 출신 좋아요”

KT 지역할당제... 광주·전남 8개大 11명 채용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기업인 KT가 시행하고 있는 ‘신입사원 지역할당제’가 취업난에 허덕이는 지방대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지방대생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모델로도 각광 받고 있다.

KT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한 신입사원 지역할당제에 따라 채용된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자는 21명. 지난 2006년에만 전남대 3명·조선대 2명·여수대 1명·호남대 1명·목포대 1명·목포해양대 1명·동신대 1명·광주대 1명 등 8개 지방대에서 11명이 신규 채용됐다.

지난해 KT 신규입사자는 전국적으로 105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명이 지역할당제에 의해 입사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서울(13명)을 제외하면 부산(8명)·대구(9명)·충남(4명)·강원(4명)·전북(4명)·충북(3명)·제주(1명) 등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많았다.

지역할당제에 의한 광주·전남 지역 채용 인원도 지난 2004년 2명에서 2005년 6명, 2006년 11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KT측은 금년 신규 채용시에도 지역할당에 의한 입사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KT의 지역할당 입사제는 지역

대학생들에게도 학업에만 전념하면 우량기업인 KT에 취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지역 인재 채용 방식은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이나 대기업, 정부투자기관 등에서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KT 전남본부 김영권 본부장은 “정보통신 선도 기업으로서 지역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 사회에 되돌리기 위해 지역할당입사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역할당제에 의해 선발된 사원들도 일반 전형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근무지가 출신 지역에 특별히 엄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물 맑은 봄바다에...

김 양식 주산지인 완도 소안도 앞바다에서 어민들이 겨울내 수확했던 김발을 정리하고 있다. 형형색색의 부표들이 가득한 바다에 봄 기운이 완연하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시·삼성 협력업체 비상체제 돌입

이건희회장 ‘가전 발언’ 파문...107개업체 금명 대책회의

지난 8일 이진희 삼성그룹 회장의 ‘생활가전 개도국 이전 발언’과 관련, 광주시는 발언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경제 위축에 따른 파장이 크며 삼성측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삼성광주전자 협력업체들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광주·전남지역 107개 협력업체는 조만간 모임을 갖고,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광주지역 경제계도 삼성광주전자 라인의 일부 이전 또는 폐쇄가 이뤄질 경우 광주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 삼성광주전자 채동석 부사장은 12일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경총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발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진희 삼성그룹 회장이 “생활가전은 한국에서 활만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했기 때문에 삼성의 생활가전 체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회장 발언 직후 삼성그룹 관계자가 “이 회장의 말은 외국의 나

이키의 경우와 같이 본사는 연구개발(R&D),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중심 업무로 배치하고, 생산기지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해외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해 생활가

전 체제변화에 힘을 실었다. 채부사장은 이날 “지관과 하우젠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한국에서 그대로 생산하고 원도어(One-Door) 냉장고 등 단순·저가제품은 중국과 태국, 멕시코 등 해외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언, 이를 일부 뒷받침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우린 해외서 길 찾았어요”

日 다이스, 목포대 면접 4명 선발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목포대생 4명이 일본 기업의 면접을 통해 뽑혀, 해외 취업문을 뚫었다.

일본 기업인 (주)다이스(大創)는 12일 우정현(26·미술학과 졸) 씨 등 목포대 졸업생 4명을 신규 사원으로 채용키로 했다고 밝혔

다. 이에 앞서 이 회사 오오즈카(63) 사장은 지난 9일 목포대 취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목포대와 일본 기업 다이스간의 인연은 목포대 학생지원과 윤여원(51) 계장과 오오즈카 사장과와의 작은 만남이 계기가 됐다.

이번에 신규채용된 우씨 등에게는 연봉 2천여만 원에 아파트 등이 제공되며, 2년간 일본 오사카 본사에서 일본어와 상품지식, 제조공정, 유통 등에 대한 업무를 익힌 후 적성에 따라 자신들이 근무하게 될 부서를 선택하게 된다.

목포대학교 관계자는 “오오즈카 사장이 이번에 취업한 학생들이 기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한다

면 앞으로도 계속 채용할 계획이고 여건이 허락하면 한국의 대학 졸업자들이 일본의 다른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다이스(주)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8개국에 해외사업소가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15억 엔(약 130억 원)으로 G테이프, 슈퍼 본드 등 일본 특허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우량 기업이다.

윤여원 계장은 “한 지인의 소개로 5년 전부터 오오즈카 사장을 만나 서로 왕래하는 등 좋은 관계를 맺어 왔다”면서 “한국은 물론 일본 대학 졸업생들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목포대 졸업생을 채용해 준 데 대해 고마울 뿐이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우정현(26)·윤여원(51)·이종태(51)·이진희(51)의 만남

목포대생 4명 선발

다이스(주) 목포대 취업 희망자 대상 면접 실시

다이스(주) 한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8개국에 해외사업소가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15억 엔(약 130억 원)으로 G테이프, 슈퍼 본드 등 일본 특허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우량 기업이다.

윤여원 계장은 “한 지인의 소개로 5년 전부터 오오즈카 사장을 만나 서로 왕래하는 등 좋은 관계를 맺어 왔다”면서 “한국은 물론 일본 대학 졸업생들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목포대 졸업생을 채용해 준 데 대해 고마울 뿐이다”고 말했다.

목포대학교 관계자는 “오오즈카 사장이 이번에 취업한 학생들이 기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한다

www.namsoo.ac.kr

www.jnu.ac.kr

年内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6·15나 8·15때 개성 유력

올해 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하고 이어 개성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베이징(北京)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11일 “남북 양측이 진행해온 물밑 접촉 결과 회담 시기로는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6·15와 광복절인 8·15 등에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정일 위원

장이 남측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남측 주문과 신변보장 문제를 들어 이에 난색을 표하는 북측 입장을 절충해 양측이 한 발씩 양보, 북한 개성에서 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북측은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먼저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방북한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이 이날 “남북정상회담에 북측도 상당한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社 告

제23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

지승룡대표 ‘감성이 돈을 춤추게 한다’

16일 광주 신양파크호텔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16일 오후 6시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제23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승룡 민들

레영토 대표가 ‘블루오션 경쟁력, 감성이 돈을 춤추게 한다’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시민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 일시 : 3월 16일(금) 오후 6시
- 장소 : 광주 신양파크호텔
- 주제 : 블루오션 경쟁력, 감성이 돈을 춤추게 한다
- 강사 : 지승룡 민들레영토 대표
- 회비 : 1만원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062)523-6028
광주일보사 경제부(062)2200-660

光州日報社·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76%
피부 시간을 뛰어넘는
삼경김

IOPE